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ILO 사회연대경제 워크숍 참석 및 ILO-진흥원 업무협약					
출장 동기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초청 “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Advanc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sia)” 워크숍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요청으로 「Policy Roundtable Discussion」 세션에서 한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제도적 환경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 ○ ILO-진흥원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확산 전략, ILO-진흥원 국제협력 활동 향후 계획 논의 ○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관계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사업의 가능성 모색 					
출장기간	2024. 6. 17. (월) ~ 2024. 6. 20. (목) (4일간)					
출장지역(국가)	방콕(태국)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경비	
					금액	부담기관
	기업성장본부	본부장	서종식	발제 및 토론, ILO 업무협약	879,315	진흥원* (ILO 일부 부담)
	사회적가치 인증센터	센터장	정상철	국제동향 조사, ILO 업무협약	1,412,033	진흥원
	사회적가치 인증센터	대리	이보인	통역 지원, ILO 업무협약	1,455,570	진흥원
계					3,746,918	

* 발제자에 한해 ILO에서 숙박(3박), 행사 기간 중(6.18~19) 조식 및 중식(4식) 지원

2. 출장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17.(월)	인천국제	수완나폼		항공이동	

09:30 ~ 13:15	공항	국제공항			
6.17.(월) 17:00 ~19:00	방콕 숙소	The Sukosol Hotel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ILO 업무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el Esim (ILO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부서장) ○ 안희진(ILO 테크니컬 오피서) ○ Mattie Milliken (ILO 아태지역 사무소 컨설턴트)
6.18.(화) 9:00 ~ 17:30	방콕 숙소	The Sukosol Hotel	워크숍 행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Roundtable Discussion 세션 발제 및 토론 (서종식) ○ ILO 사회연대경제 워크숍 참석 및 국제 동향조사 (정상철, 이보인) ○ 통역 및 해외 인사와 의사소통 지원 (이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nudda Boonpala (ILO 아태지역 사무소 부소장) ○ Thanawut Supangkaratana(태국 사회적기업진흥청) ○ Mutmainah Korona (인도네시아 팔루시 의원) ○ Jonathan Wong (UN 아시아태평양지부) ○ Balu Iyer (ICA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등
6.19.(수) 9:00 ~ 18:00	방콕 숙소	The Sukosol Hotel	워크숍 행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통계 세션 발제(정상철) ○ 국제 동향조사, ILO 등 주요 인사와 네트워킹(서종식, 정상철, 이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diyanto Rashid (인도네시아 팔루시 시장) ○ Tite Habiyakare (ILO 지역 통계 전문가) ○ Mansour Omeira (ILO 사회 혁신 전문가) 등
6.20.(목) 09:50 ~ 17:35	수완나폼 국제공항	인천국제 공항	항공이동		

3. 업무 수행 내용

□ ILO-진흥원 업무협의

월일시 (요일)	구분	내용
6.17.(월) 17:00	회의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사회적경제 동향 소개 ○ ILO-진흥원 향후 협력활동 논의 ○ 아시아 내 사회연대경제 확산 전략 논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el Esim (ILO COOP/SSE(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부서장) ○ 안희진 (ILO technical officer) ○ Mattie Milliken (ILO 아태지역 사무소 컨설턴트) ○ 서종식 (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 정상철 (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장) ○ 이보인 (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대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 동향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모델은 ILO에게 모범사례. 한국은 사회연대경제 담당 정부 산하 기관이 있는 유일한 국가 ○ ILO 활동 현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COOP/SSE'로 부서 명칭 변경 - 112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 결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언급 ○ 2024년 국제포럼 개최 관련 협업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준비 단계부터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함 - 포럼 주제와 상황에 맞춰 ILO 연사 추천(협동조합 부서장 기조연설(대면 혹은 동영상), 아태 지역 사무소 관계자, 복수의 ILO 관계자 추천 등) ○ 해외 자료 번역 사업 관련 협업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결의 및 결과, 배경이 되는 보고서 번역 제안 - ILO SSE 공개강좌 한국어판에 대한 피드백 공유 예정 ○ ILO 향후 활동 계획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 채택 후, 전략적 실행 계획(SAP)을 기반으로 연구, 정책(역량구축)과 파트너십 분야에서 지속적 활동

□ ILO 사회연대경제 워크숍

월일시	구분	내용
-----	----	----

(요일)		
6.18.(화) 9:10	세션1	<p>[세션 1] 정책 라운드테이블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여 아태지역의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관련 정책, 법규제 개발 및 시행 관련 경험과 통찰 공유
	연사	<p>[좌장] Kelvin Sergeant (ILO)</p> <p>[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ong Duong Tuan (베트남 협동조합 연맹) ○ Thanawut Supangkaratana (태국 사회적기업진흥청) ○ Osamu Nakano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 ○ Mutmainah Korona (인도네시아 팔루 시 의회) ○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p>[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nathan Wong (UN ESCAP) ○ Balu Iyer (ICA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ong Duong Tuan: 베트남 협동조합법 목적은 법체계를 장려하고 경쟁 촉진, 혁신과 지속가능성 활성화,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강화를 위함. 올해 6월 개정된 협동조합법에 3개 장과 51개 조항 추가. 개정법에 따라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고 정책 이행과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조직 관리 관련 조항은 ICA의 7개 원칙에 근거함. 베트남 협동조합 연맹은 베트남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Thanawut Supangkaratana: Office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은 2019년 태국의 사회적기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부 기관. 사회적기업 등록, 진흥,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 현재 태국에는 등록 사회적기업 286개, 예비사회적기업(social business group) 119개가 있음. 사회적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고, 지역사회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가져야 하고, 수익의 70%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하는 5가지 요건이 있음. 사회적기업은 세제혜택, 정부조달, 사회적기업진흥 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Osamu Nakano: 일본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는 일본 전국 노동자 협동조합의 연합으로 1979년 설립. 17개의 정회원, 24개 준회원 협동조합이 있음. 가입 협동조합들은 주로 육아,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공공시설 운영, 청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활동. 일본의 노동자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도 같음. 일본은 2020년 12월 4일 노동자 협동조합에 관한

	<p>법을 제정함. 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은 협동조합의 7번째 원칙에 기반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반영하며 본 법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을 위한 법체계라는 점을 명시. 협동조합법에 따라, 3인 이상의 조합원들이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조합원들은 협동조합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조합원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짐. 세제 혜택은 없음. 24년 6월 기준 일본에는 총 94개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고 지역경제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에 UN에서 일본의 협동조합을 높이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tmainah Korona: 팔루시는 2018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받음. 현재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충분하지 않음. 팔루시 정부가 재난 후 활동 중인 중소기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음.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 및 자금 지원은 제한적.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주로 자선이나 기부 중심으로 운영. 팔루시의 장애인 권리 실현, 보호, 존중 관련 지역 규제(The regional regulation no. 10)와 투자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관련 지역 규제(The regional regulation no. 13)가 사회연대경제를 지원. ○ 서종식: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자생적 활동에서 출발. 1960년에서 1999년 사이에 8개의 협동조합법 제정.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한국은 13개 법률에 근거하여 10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1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음.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 정부는 3가지(사업보고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 데이터를 수집. 사회적기업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계로 가시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SVI(Social Value Index)를 개발하여 매년 1,5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측정 ○ Jonathan Wong: 한국이나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회적경제 정책이나 법이 있었지만 기존 주류 경제에 비해 사회연대경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 그렇기에 앞으로 여러 정책에서 계속 혁신해나가는 것이 각국 정부에게 우선순위가 될 것.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사회연대경제 원칙을 주류 기업 정책과 투자 정책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가치와 원칙이 주류 경제에 묻혀 퇴색될 수 있는 리스크도 고민해 볼
--	--

		<p>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Balu Iyer: 협동조합은 오랜 역사가 있기에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됨. 협동조합은 첫 번째 사회적기업 조직으로 인정을 받음.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정책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 자선이나 기부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 세제혜택, 정부조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 협동조합 이전 단계에 있는 조직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 데이터 구축, 자금 지원 필요성 등도 언급.
6.18.(화) 10:50	세션2	<p>[세션 2] 사회연대경제 관련 ILO 및 UN 결의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2022년 6월 제110차 ILO 노동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채택, 2023년 4월 사회연대경제 관련 UN 결의안도 채택됨. 이러한 결의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각국이 어떻게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을지 논의
	패널	<p>[좌장] Xiaoyan Qian (ILO) [발제] Simel Esim (ILO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부서장)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곽은경 (GSEF 전 사무국장) o Denison Jayasooria (Asian Solidarity Economy Council 이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imel Esim: 사회연대경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UN 기구로서 ILO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 현재 SDG 달성율은 15% 정도이고 SDG 활동의 1/3은 실상 퇴보. SDGs 활동의 맥락에서 ILO와 UN 결의안을 보는 것이 중요. ILO 결의안, UN 결의안은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 UN 결의안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UN 회원국, UN 산하 기구, 다자금융기관 등 관련 주체에게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행동 촉구. ILO는 UNTFSSSE를 통해 UN 사무총장 보고서 준비, 전략실행계획(SAP) 발표, 교육/연구 등 결의안 채택 이후 후속 활동 진행 중. ILO와 UN 결의안을 통해 채택된 사회연대경제 정의와 관련해 아시아 각국이 국내적으로 이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 아직 사회연대경제가 아시아 내에서 새로운 개념이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럽, 아프리카 등 다른 사례들을 보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음. 112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 결의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여러 번 언급되었음. 이는 위기의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녹색경제, 돌봄경제 등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데 사회연대경제를 주류화하는 계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은경: ILO 결의안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에 있어 SSE의 중요한 역할과 가능성을 UN 산하 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문서, 2) ILO가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되는 SSE 개념을 채택하여 정부와 관련 조직들이 SSE의 기여를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측정하도록 장려, 3) 위기의 시기, 많은 SSE 조직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역량을 보여준다는 점을 ILO가 인정. 아시아 국가들은 ILO와 UN 결의안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관련 부처, 지역 정부, 언론, 학계 등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 SSE 조직 대표, 전문가, 연구자와의 워크숍을 통해 SSE 활성화와 관련 정책을 더 잘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계획과 우선순위를 세우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을 제고할 수 있음. ○ Denison Jayasooria: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요한 국제 동향은 UNTFSSSE 창립과 UN 결의안 채택. UN 및 ILO의 결의안은 사회연대경제에 적법성, 가시성 제공. 사회연대경제와 SDGs를 연계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ILO 아태 지역 사무소가 SSE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것 제안.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사회연대경제도 의제 중 하나로 선정됨. 회의에서 보고서 「Building Inclusive Communities through SDGs and SSE initiatives」 발표 예정.
6.18.(화) 13:00	세션3	<p>[세션 3] 아시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 및 정책적 함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프로젝트 참여 4개국의 사회연대경제 연구 결과 발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 도전과제와 가능성 및 정책적 권고사항 발표
	패널	<p>[좌장] Benjamin R. Quinones Jr (아시아연대경제위원회 의장)</p> <p>[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희진 (ILO) ○ Ngin Chanrith (캄보디아 대표) ○ Bat Orshikh Erdenebat (몽골 대표) ○ Purvedulam Jamiyansuren (몽골 대표) ○ Akkanut Wantanasombut (태국 대표) ○ Kieu Oanh Pham (베트남 대표) ○ Giang Chu (베트남 대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희진: 2차 ILO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 소개. 서베이를 통해 현장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국의 사회적기업 원칙과 정의를 확인하고 국가별 비교. 이후

	<p>자체 평가,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의를 진행. 프로젝트 참여 국가의 정부, 고용주와 노동자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 향후,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돌봄경제, 공급망,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주류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t Orshikh Erdenebat: 몽골은 노동사회보호부, 고용주 협회, 노조협회, 중소기업청과 몽골 상공회의소 대표 7인으로 구성된 국가 자문 위원회를 설치. 몽골의 경우 조직에 따라 관리 부처가 다르고, 사회연대경제는 아직 생소한 개념. 몽골의 전통적인 유목민 문화에 이미 사회연대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나, 이를 지금의 시장경제 방식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움. ○ Purvedulam Jamiyansuren: 몽골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웃 간의 강한 유대감, 평등한 정치적 의사 결정과 자원, 지식, 노동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잘 뿌리 내릴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비전 2050’, ‘신 회복 정책’ 등 국가 발전 정책 및 전략에서 사회연대경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음. 이에 본 몽골 연구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고유의 성격과 특징에 잘 맞는 법체계 수립과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식 공유 촉진, 몽골 내 사회연대경제 전문가들 간의 협업 활성화를 제안 ○ Ngin Chanrith: 캄보디아에는 비정부기구와 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법은 있으나 사회적경제 자체를 위한 개별 정책 혹은 법체계가 부재. 태국과 같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없음. 캄보디아에는 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존재함. 비정부기구, 비영리 민간단체(association), 재단, 자조 집단, 공동체 기반 조직 등이 있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별 정책, 개별법과 담당 기관이 필요 ○ Giang Chu: 베트남에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상위개념, 법이 존재하지는 않음. 사회적기업, 사회적 임팩트 기업 등 다양한 조직이 존재. 사회적기업은 기획투자부 소관이고 비영리 민간단체(association)는 내무부 담당, 소액금융 기관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관리.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법 마련을 준비 중.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위 개념에서 정책,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Kieu Oanh Pham: 베트남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여러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 활동. 코로나 이후 전쟁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	---

		<p>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함께 모여 더 큰 노력을 해야 함.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협동조합을 위한 정책과 정부 지원은 많지만, 민간 부문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 이에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과 증거에 기반한 종합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kkanut Wantanasombut: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국내 경제의 자생력 관련해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역경제 살리기, 풀뿌리 경제 개념이 나오게 됨. 태국은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 용어에 지역경제, 풀뿌리 경제,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이 포함됨. 태국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25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인터뷰를 한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조직이 SDG 달성에 기여하고 있었음. 정책뿐만 아니라 이행과 인식 제고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현 경제체제에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평등,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움. 해결의 열쇠는 사회연대경제임.
6.18.(화) 14:30	세션4	<p>[세션 4] 사회연대경제와 공급망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공급망, 라벨/인증제, 협동조합 간의 교역 방안 등을 모색
	연사	<p>[좌장] Valkyrie Hanson (ILO)</p> <p>[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on Onn Sein (Foundation for Community Studies and Development) o Xu Mingfeng (All-China Federation of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 o Joanne Choi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Asia)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on Onn Sein: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은 외딴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감. 소외되어 살아가는 영세농민이 대부분이기에 수확량도 적고 청년 세대는 일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추세. 이런 배경에서 공급망 확보는 매우 어려운 일. 기존의 공급망에서 원주민 농민들의 수익은 최종 소매가의 20%에 불과함. 중개상인이 40%를 가져가고 외딴 지역이기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물류·운송 비용도 큼. 이렇듯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공급망 모델을 설계함. 협상을 통해 최종 소매가의 40%가 원주민 농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기술 및

		<p>교육 지원을 제공함. 또한,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일했던 영세농민들이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공동체 농장에서 모여 일하면서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수확함. 이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로 발전. 강력한 결속력으로 내규, 원칙 등을 마련하고 나아가 숲을 보호하고 녹색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 정부와도 협업. 이러한 활동이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더욱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환경 보호와 기후행동에도 기여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Xu Mingfeng: All China Federation of Supply and Marketing Cooperatives는 중국의 협동조합과 다른 국가의 협동조합 간 교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틀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 있음. 현재 카자흐스탄과 MOU를 체결하여 무역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ICA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 활동을 하며 국제 행사에 적극 참여. 이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협동조합 간 협력 촉진에 대한 우리의 지지 의사를 보여줌.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협력 활동을 통해 더 수준 높은 생산 기준을 경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o Joanne Choi: 사회연대경제와 공정무역운동은 비슷한 미션을 가지고 있음. 공정 무역 조직들도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하는 민주적 조직. 또한 공급망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식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마케팅, 제품 개선 방안 및 정책 관련 최신 소식을 공유하는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함. 공정 무역에도 인증제가 있음. 공정 무역 운동은 사람과 지구를 최우선시하고 여러 이해당사자와 공급망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변혁적인 운동임.
6.18.(화) 16:05	<p>세션5</p> <p>패널</p>	<p>[세션 5]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있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비공식 경제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사회보장 혜택, 근로자의 권리 보장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 탐구 <p>[좌장] Simel Esim (ILO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부서장)</p> <p>[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oonsap Tulaphan (HomeNet Thailand) o Mirai Chatterjee (SEWA) o Fish Ip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

	<p>주요 내용</p>	<p>[패널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sh Ip: 사회적 정의와 경제라 하면 항상 비공식 경제에 대한 언급이 있음. 가사노동자 중 대다수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집이나 직장에서 모여 자신들의 역량이나 경험을 공유함. 이러한 모임의 대부분이 비공식적 신용 협동조합의 역할을 함. 대개 이들이 버는 소득은 작고 가족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사적 협동조합을 통해 저금리로 돈을 빌림. SEWA같이 제도화가 된 조직도 있으나 가사노동자들이 조직한 단체 대부분은 이들이 일하는 마을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함. 또한, 일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도 함.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은 이러한 단체들이 더 잘 조직화되고 리더십을 구축하여 가사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이들이 노동법에 포함되어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Poonsap Tulaphan: 재택노동자(home based worker)란 집을 직장처럼 사용하는 노동자를 의미. 일부 재택노동자는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집에서 일함. HomeNet Thailand는 재택노동자들의 조직을 지원하고 이들 조직을 교육하고 재택노동자, 비공식경제 종사자와 사회보호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고자 노력함. 2002년 집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조직화를 지원한 이후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사노동자, 노점상, 택시 기사들의 조직화를 지원함. 태국에는 비공식경제 종사자들이 10,000명이 넘음. 대부분 임금이 매우 낮고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관계로 비영리 민간단체(association)로 등록함. HomeNet Thailand는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음. 그 결과, 2010년 태국은 재택노동자(homeworker) 보호법을 시행함. 앞으로 HomeNet Thailand는 재택노동자와 더 나아가 비공식경제 종사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사회연대 경제와도 계속 협업을 해나갈 계획이고 다른 사회보호법 혹은 정책과 관련해 더 많은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것임. ○ Mirai Chatterjee: SEWA는 1972년 비공식 경제 여성 종사자들의 노조로 창립. 인도에는 비공식 경제 종사자가 5억 이상이고 주로 영세농민이나 수공업자로 인도 노동력의 93%를 차지. SEWA의 창립 정신은 인도 노동 운동에서 태동. 최저임금, 사회보호와 노동자 권리를 위해 노동자들이 결집하였지만 어려움이 많았음. 이때 단합이라는 공동 행동과 노동자들의 연대 구축에 협동조합이 매우 효과적이었기에
--	------------------	---

		SEWA는 SEWA 협동조합 연합회를 설립함. 연합회를 통해 금융, 의료, 육아, 가사노동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및 임팩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협동조합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애드보커시 활동 강화에 기여하는 등 여성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 브랜드와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이들이 하는 일을 잘 알리고, 조합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성 노동자 협동조합의 주요 이슈
6.19.(수) 09:00	세션6	[세션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o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음으로써 포용적인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패널	[좌장] Eric Roeder (ILO) [연사] o Peerada Patitas (Chairman of the Community Enterprise Waste Revolution Coalition in Suphanburi, Thailand) o Hadianto Rasyid (인도네시아 팔루시 시장) o Rowena Abella (CLIMBS VP Marketing)
	주요 내용	o Peerada Patitas: Community Enterprise Waste Revolution Coalition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특히 비닐봉지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은 분해가 잘 안되기에 이를 디젤과 휘발유로 바꾸는 방안을 고안함.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전환해 농기계를 작동하고 연료를 판매함으로써 농민들이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 Coalition의 주요 활동은 환경을 위한 캠페인과 순환경제 창출 기여임. 현재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학습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o Hadianto Rasyid: 2018년 팔루시는 지진과 쓰나미를 겪음. 4,000명이 피해를 입은 대규모 재난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함. 그러나 이 시기에 사람들은 연대를 강화하고 함께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 사회연대경제는 '단합할 때 우리는 서로 형제'라는 팔루의 전통 개념과 일치.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주민 간의 협력이 중요. 팔루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24시간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 o Rowena Abella: CLIMBS는 53년의 역사를 지닌 필리핀 보험 협동조합으로 전국적으로 4,000개 이상의 주요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활동.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협동조합에 제공함. 최근, 필리핀 최초 기후 관련 보험 상품(Weather Protect Insurance)을 개발하여 기후 회복력을 지지하고 기후

		위기 완화 및 적응 활동 육성에 기여. Weather Protect Insurance의 가입자는 510만 명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산 보전에 기여.
6.19(수) 10:35	세션7	[세션 7]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의 사회연대경제, 노동자 권리와 노동 환경 ○ 사회연대경제가 플랫폼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의견과 권리가 존중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플랫폼 협동조합과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의 사례 제시
	패널	[좌장] Phu Huynh (ILO) [연사] ○ Akkanut Wantanasombut (Founder of Tamsang-Tamsong) ○ Anita Gurumurthy (Founding member and Executive Director of IT for Change) ○ Heira Hardiyanti (Co-founder of MyCoolClass)
	주요 내용	○ Akkanut Wantanasombut: 코로나19가 한창인 시기에 Tamsang-Tamsong 창립. 본 프로젝트의 핵심가치는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생각하고 수익이 아닌 혜택을 생각하고 타협이 아닌 협업을 추구한다는 것. 기술을 활용해 위기의 시기에 누구도 더 많은 희생을 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음식 배달앱. 플랫폼 구축 후, 노점상 주인과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투입해 디지털 문해력 증진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 은행에 요청하여 모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बैं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일반 배달앱과 큰 차이는 탈중앙화. Tamsang-Tamsong은 여러 지역에서 규모가 작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당 지역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결정에 따라 가격 체계도 다름. 우리는 여러 주요 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상생을 추구함. ○ Heira Hardiyanti: 코로나로 거의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되었음. 온라인 교육의 주요 동력은 교사이지만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교사들은 기존 임금의 60%밖에 받지 못하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교사들에게 8시간 이상을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온라인 교육 분야 플랫폼 협동조합 MyCoolClass 설립. 창립 조합원들이 호주, 미국,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기에 다국적 협동조합이기도 함. 영국은 협동조합 등록 시, 꼭 영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영국 시민권자여야 하는 의무가 없고, 조직

		<p>이 해외에 있으면 면세가 되기에 영국에서 협동조합을 등록. 이전에는 후원자들에게 기부를 받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들을 투자조합원(investor member)으로 구분하여 이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함.</p> <p>o Anita Gurumurthy: IT for Change는 일의 융합과 일터 플랫폼화의 영역에서 활동. 코로나로 대부분의 직장이 플랫폼화 되어 가기에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을 위한 벤치마킹, 기준 설정은 매우 중요. 사회연대경제와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디지털 경제 내 기술 당위성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 중소기업, 소외계층도 양질의 일자리를 재정의하고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동력인 알고리즘과 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배경에서 IT for Change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3년 전 ILO와 함께한 연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 강화의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시장규제를 통해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지역, 소기업, 여성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 설계, 공공구매 등의 정책 개입이 필요.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시장 압박, 인프라 부족, 규제격차 등의 도전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p>
6.19(수) 13:00	세션8	[세션 8]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통계 발전
	패널	<p>[좌장] Tite Habiyakare (ILO)</p> <p>[연사]</p> <p>o Barbara Sak (Director of CIRIEC International)</p> <p>o Mansour Omeira (Social Innovation Specialist, ILO COOP/SSE)</p> <p>o David Hunter (ILO Consultant)</p>
	주요 내용	<p>o David Hunter: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내에서의 협동조합 중요성을 보여주고 공공 정책이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협동조합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필요. 국가별 상황과 협동조합의 성격, 발전 단계 등이 다르기에 통계 개선을 위한 국가 실행 계획에 있어 하나의 통일된 양식을 쓸 수 없음. 통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는 우선, 협동조합 관련 국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향후, 협동조합 통계 시범사업 참여 5개국(탄자니아, 코스타리카, 튀르키예, 한국, 이탈리아)의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Community of Practice (실천공동체)를 구성할 예정. 현재 COPAC과 함께 Technical working group(실무그룹) 구성 중.</p> <p>o Barbara Sak: CIRIEC은 전문가와 학계 간 학술 네트워크에</p>

		<p>기반하면서 기업과 단체 관계자들도 활동을 하기에 연구와 현장 활동 간의 연계 가능. CIRIEC은 학술위원회(scientific commission)를 통해 활동하고 이 중 Marie Bouchard 교수가 이끄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경제 관련 위원회에서 여러 보고서 출간. 국제 매핑 UN 워킹 페이퍼, 사회연대경제 백과사전(SSE encyclopedia)에 통계 관련 부분 등이 있음. 유럽에서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은 위성계정 활용. 통계 프로젝트에 있어 데이터 없이 자료 구축은 어려움. 이중 집계 예방과 사회적경제 범위 규정이 중요. 통계전문가들에게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연대경제를 측정할 때 통계를 사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sour Omeira: 지난주 ILO는 대한민국 정부와 MOU를 체결함.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지식 기반 강화 2차 프로젝트 진행 예정. 2차 프로젝트는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통계에 더욱 집중하여 ①사회연대경제 통계, ②협동조합의 경제적 기여 측정을 포함한 협동조합 통계, ③지식 공유와 관리라는 3가지 측면에서 활동 예정. 향후 사회연대경제 통계적 지식 기반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 ○ 정상철: 한국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구분. 기획재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시행. 올해 5월, 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발표. 22년 기준, 23,892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5차 실태조사 대비 23% 증가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협동조합 수도 5차 대비 23% 증가.
6.19(수) 14:00	세션9	[세션 9] 사회연대경제 - 배움에서 행동으로
	패널	[좌장] Simel Esim (ILO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부서장) [연사] Anita Amorim (Unit Head, PARDEV, ILO)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ita Amorim: 사회연대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안건을 각 지역에서 더 잘 흡수하고 이를 현실화하는데 기여. 남-남 삼각협력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 간 협력에 더해 이 협력을 지원하는 주체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SDG 17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회연대경제 부문에도 연결되는 개념. 사회연대경제와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연대, 상호 혜택, 사람들의 파트너십이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 남-남 협력은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유용한 수단. 국제노동총회에서 남남-삼각협력 등 여러 국제 개발 프로젝트에 사회연대경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음. 지역/국가/도시 간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성과를 잘 보여줄 수 있음.
	세션10	[세션 10] 국가 우선순위 및 비전 설정
	패널	[진행] o Simel Esim (ILO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부서장) o 안희진 (ILO technical officer) [발표]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강화 프로젝트 참여국(태국,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대표
6.19(수) 15:00	주요 내용	o 태국 대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미흡, 역량 부족, 분배의 불평등,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 부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과 데이터 접근 제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고정관념 등 여전히 사회연대경제가 성장하기에 제약이 있음. 우선,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대중과 정부 부처에 알리는 것이 필요함.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는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고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가들의 정책 설계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o 캄보디아 대표: 비전보다는 기존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 계획(work plan)을 논의. 사회연대경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규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관련 통계와 데이터 활용이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공식화로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기존의 법체계와 비공식 경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관련 정책 그리고 국가 최저임금 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 o 몽골 대표: 몽골에는 아직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나 규제가 없음.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정부 정책 문서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공식경제로의 전환 활동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함.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종합적인 통계자료 부재도 어려움 중 하나.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금융 접근성 제한, 역량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어려움을 겪음. ILO 프로젝트의 몽골 컨설턴트는 포괄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SNS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포괄적인 통계자료를 위해서는 국제적 방법론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o 베트남 대표: 베트남은 작년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고 사회

	<p>적기업은 기업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후속적인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음. 그렇기에 핵심 사안은 사회연대경제 법체계를 적용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 사회적기업을 충분히 성장시켜 이들 기업이 국가 목표 달성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 현재 베트남에는 특정 형태의 사회적기업이나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과 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들이 조화를 이루고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p>
--	--

4. 출장성과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 및 진흥원 국제적 위상 제고
 - ILO 관계자는 물론 타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정책과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고, 사례 공유에 대해 감사를 표함
 - ILO COOP/SSE 부서는 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
 - 관련해서 진흥원의 2024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해외 자료 번역 사업에 있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ILO 활동 관련해서도 지속해서 협업하기로 함.
- 워크숍에서 수집한 사회적경제 국제 동향 정보는 추후 글로벌 뉴스 Zoom-in 등 관련 자료 작성에 활용 예정

5. 소요경비

성명	금액계	운임 (항공, 공항버스)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자료 수집비 등)
			일비	식비	숙박비			
서종식	879,315	529,600	194,286	155,429	-	-	-	-
정상철	1,412,033	651,900	166,531	202,612	390,990	-	-	-
이보인	1,455,570	654,200	166,531	202,612	386,187	46,040	-	-
계	3,746,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서종식 본부장)에 한해 ILO에서 숙박(3박)과 행사 (6.18~19) 기간에 조식 및 중식(4식) 지원 ○ 준비금(여행자보험) 1인이 일괄 결제 						

6. ILO-진흥원 업무협의 및 워크숍 참여 사진

